



페퍼저축은행 세터 이고은이 18일 순천에서 열린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B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토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퍼스 한 세트도 못 따고 3전 전패

1세트 12-5로 앞서다 역전 당해 순천 컵대회 현대건설에 0-3 패

페퍼저축은행이 올시즌 첫 출전한 컵대회에서 한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3전 전패했다. 페퍼저축은행은 18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B조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0-3(22-25, 14-25, 14-25)으로 패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4일 한국도로공사, 16일 KGC인삼공사전에서 각각 세트 스코어 0-3로 패한데 이어 이날까지 3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이번 대회를 마쳤다. 현대건설과 지난해 12월 정규리그에서부터 이날까지 4차례 격돌했으나 모두 세트 스코어 0-3로 4연패 했다. 결정적인 승부처는 1세트였다.

페퍼저축은행은 모처럼 공격과 수비가 살아나면서 초반 12-5까지 점수차를 벌리며 여유있게 리드했다. 컵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자 2021-2022 V리그 정규리그 1위인 현대건설을 압도했다. 박경현이 6득점, 박은서가 6득점을 올리면서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서브 리스브가 모처럼 살아난 것도 활력소가 됐다. 박경현이 디그 4개, 박은서가 3개, 리베로 문슬기가 5개로 현대건설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에는 양효진이 있었다. 페퍼저축은행 아포짓 스파이커 하혜진의 공격 범실에 이어 양효진이 다시 오픈 공격을 쫓으면서 12-15로 추격을 허용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세터 이고은과 날개 공격수들의 호흡으로 18-13으로 다시 달아났지만, 현대건설은 높은 블로킹과 촘촘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방어하고, 정시영이 3연속 득점에 성공해 16-18로 격차를 좁혔다.

1세트 막판, 잘 버티던 페퍼저축은행의 리스브라인이 무너졌고 현대건설은 틈을 파고들었다. 현대건설은 19-22에서 황연주의 킥 오픈으로 1점을 만회했고, 이어진 랠리에서 양효진의 오픈 공격으로 페퍼를 압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고에림에게 킥 오픈으로 22-22 동점을 허용한 뒤 세터 김다인의 2단 공격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22-23에서 박은서의 오픈 공격이 양효진의 블로킹에 막혔고, 24-22에서 고에림에게 킥 오픈을 허용해 다잡은 세트를 놓쳤다. 1세트를 허망하게 내준 페퍼저축은행은 현대건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뒤 2,3세트에서 각각 14점을 뿜아내는 데 그쳤다. 한편, 14일 KGC인삼공사를 3-0으로 물리친 현대건설은 16일 한국도로공사에 1-3으로 패했지만, 마지막 날 페퍼저축은행에 승리하며 조 2위가 지엄은 준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22일 개막 안세영, 한국 여자단식 첫 금메달 도전

22일부터 일본 도쿄서 개최

한국 배드민턴이 8년 만에 세계개인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했다. 1977년 스웨덴에서 처음 열린 세계개인선수권대회는 개인전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대회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리는 대

회로, 한국은 2014년 대회서 고성현-신백철이 남자복식에서 우승한 것이 마지막 금메달이다. 지난해 대회에선 여자 복식에서 이소희-신승찬이 준우승, 김소영-공희용이 3위를 차지했다. 이소희-신승찬-김소영-공희용은 이번 대회에도 나란히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간판인 안세영도 한국의 여자단식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자단식에선 허광희가 출전하고, 남자복식 서승재-최솔규-강민혁-김재환도 우승을 노린다. 서승재와 최솔규는 각각 채유정과 신승찬과 짝을 이뤄 혼합복식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안세영

'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 재심 청구 포기...징계 확정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8일 "김민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마감일인 17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징계는 확정됐다"고 전했다.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정재웅(성남시청·선수 자격정지 1년), 정선교(스포츠토모·선수 자격정지 6개월), 정재원(의정부시청·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도 확정됐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김민석과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김민석과 정재웅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

를 잡았고, 김민석은 촌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는 지난 8일 징계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다. 선수 관리 문제로 공정위에 회부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진수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 참석 광주 온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장 "반다비체육센터, 가장 성공적인 패럴림픽 유산 스포츠를 통해 통합사회 구현하는 훌륭한 사례"

"반다비 체육센터는 평생 본 패럴림픽 유산 중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케이스입니다."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유산으로 전국에 건립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렇게 평가했다. 광주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내에 지어진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는 18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패럴림픽의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과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주요 정책이다. 장애인이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체육시설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통합 시설'로 운영하고자 한다. 지난달까지 전국 77개소 건립이 결정됐으며, 2027년까지 150개의 센터를 짓는 게 목표다. 첫 센터 개관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파슨스 위원장은 이날 센터를 찾아 "대회 유산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통합사회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사례다. 장애가 있는 없든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은 운동할 권리가 있다. 반다비 센터를 통해 운동을 즐길 권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장. /연합뉴스

개관식 측에서 그는 "이 사업에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체육관, 수영장, 종목 특화형 체육시설은 물론 맞춤형 프로그램, 기구, 지도자까지 갖춘 사회 통합형 체육 시설이 전국 150여 곳에 건립되면 수천, 수백만 명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IPC를 이끌어 온 파슨스 위원장은 4년 전 평창 패럴림픽도 직접 지켜본 바 있다. 그는 "한국은 패럴림픽 무브먼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다. 단순히 차기 대회가 아니라 그 이후를 보는 계획을 하고 있고, IPC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패럴림픽 유산 사업을 추진한 정부 지자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이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10일 모나코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바를 넘고 있는 이상혁. /연합뉴스

이상혁, 바심과 16일 만에 재대결

로잔 다이아몬드리그 엔트리 공개

남자 높이뛰기 '빅2' 체제를 굳힌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과 무타즈 예사 바심(31·카타르)이 16일 만에 재대결한다. 로잔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는 18일(한국 시간) 출전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계육상연맹 로잔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3시 10분에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이상혁과 바심, 장마르코 탬베리(30·이탈리아),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 주벤 해리스(23), 셀비 매큐언(26·이상 미국), 해머시 커(26·뉴질랜드), 장 로벳(30·캐나다), 마테우 프리리코(30·독일) 등 9명이 출전한다. 실외 개인 최고 기록을 보면 이상혁(2m35)보다 높은 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바심(2m43), 프로

첸코(2m40), 탬베리(2m39), 해리스(2m36) 등 4명이나 된다. 하지만 올 시즌 이상혁(2m35)보다 높은 기록을 낸 선수는 바심(2m37) 단 한 명뿐이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에서도 '현역 최고' 바심에 이상혁이 도전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7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하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바심이 2m37을 넘어 2m35를 뚫은 이상혁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이상혁은 한국 육상에 사상 첫 실외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선물했다. 이상혁은 지난 11일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바심과 연전연승 '점프 오프'를 치르며 2위를 차지했다. 로잔 대회는 남자 높이뛰기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시리즈 진출자(6명)를 가리는 마지막 대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비상선언
4관	늑, 미니언즈2
5관	늑, 바다 탐험대 옥토포: 탐험선 대작전
6관	헌트
9관	헌트, 극장판 살아남기 시리즈: 인체에서 살아남기
7관 씨네캐슬	늑,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8관 씨네캐슬	한산: 용의 출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오늘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